

파행적인 정부의 사학 정책

—등록금 문제를 진단한다

I. 등록금 투쟁의 기원과 오류

등록금 투쟁은 88년말 문교부가 실시한 사립대학 등록금자유화 정책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또한 학생회비 분리 납부 고지서를 실시하라는 조치가 더불어 매년 등록금문제로 진통을 겪고있는 상태다.

이와같은 문교부가 학생회와 해결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등록금 투쟁이 처음 시작하게 되는 89년에는 등록금동결투쟁을 1학기에 걸쳐 진행한 결과 1학기의 대정부투쟁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행되는 오류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 기존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첫번째 시기인 89년도에는 양 캠퍼스가 독자적으로 학교측과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서울은 4.5%로 결말을 지는데 반해 수원 학생들은 6%로 결말이 나 그후 수차례의 협의를 다시 거쳐 4.5%로 인상률을 정하는 오류를 빚기도 했다.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단위:천원)

순위	대학명	지원금 현황	순위	대학명	지원금 현황
1	영 남 대	488,255	19	순 천 향 대	291,312
2	연 세 대	480,622	20	경 성 대	282,222
3	고 려 대	472,514	21	포 항 공 대	272,552
4	한 양 대	460,808	22	인 하 대	268,203
5	동 아 대	416,012	23	효 성 여 대	255,261
6	원 광 대	390,965	24	동 의 대	250,435
7	계 명 대	390,631	25	동 신 공 대	246,170
8	울 산 대	389,582	26	배 제 대	236,677
9	대 구 대	387,870	27	한 남 대	213,121
10	인 제 대	387,381	28	청 주 대	229,235
11	단 국 대	378,243	29	성 공 관 대	213,655
12	건 국 대	375,444	30	상 지 대	213,111
13	합 립 대	312,596	31	홍 익 대	205,982
14	경 남 대	312,596	32	동 국 대	203,165
15	호 서 대	309,769	33	이 화 여 대	196,729
16	중 앙 대	301,385	34	전 주 우석대	190,879
17	한 국 외 대	293,194	35	카 톨릭 대	180,702
18	경 회 대	293,194	36	분 산 외 대	161,823

이것은 현재까지도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적간의 통합은 아니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서로 공유하지 못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둘째, 학생대중들과 격리된 상층부만의 협상논의와 정책이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90년도에 9.5%로 등록금인상분을 결정한 후 대의원회의 학생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 나중에 일반 학생들에게 불만을 품게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2년간의 등록금 투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또한 등록금 인상폭 중심의 협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등록금 투쟁이 대정부투쟁이라는 것을 홍보 및 선전은 하고 있으나 학생대중의 이해와 관심도가 등록금 인상률에만 작용했다는 것도 이러한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합리적인 기구로 두는 한편 수처상의 협의가 아닌 정부의 국가보조금 증액, 재단의 학교에 대한 재단전입금확충등 교육재정확보를 궁극

국·공립 대학보다 불이익 많아 국가보조금·재단전입금 증액이 해결책

평가되는 수처상의 협의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2년간 등록금 협의에 임하는 학생조직을 살펴보면 등록금정책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등 상설적인 기구로서가 아닌 협의가 완결되면 해체되는 일시적인 기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한 것이다.

적인 목표로 두고 활동하며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재표(중문·4)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올해의 물가폭등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을 볼때 어느정도의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의 차등 지급등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과 재단의 학교에 대한 지원비비 등은 학교 예산을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등록금 투쟁은 학교측을 상대로하는 논의의 폭을넓혀 대정부·재단투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II. 국정감사자료를 통해본 대학 재단 현황 및 정부의 사학 정책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등록금인상은 단순히 학생, 학교 양간의 논의를 통해서 풀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재단전입금 확대, 국고보조금의 대폭지원을 통해만이 해결될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90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총 1백51억9백18만1천원(전년대 40억여)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 영남대에 4억8천8백25만5천원으로 전국

대학명	전입금(a)	운영수입(b)	전입비율(a/b)
한 립 대	9,623,500	14,914,814	64.5%
인 제 대	10,824,747	16,937,831	63.9%
아 주 대	11,739,699	26,602,981	44.1%
고 려 대	30,263,512	75,147,158	40.3%
연 세 대	16,234,762	72,987,219	22.3%
홍 익 대	4,590,000	24,808,739	18.5%
중 앙 대	7,365,041	43,536,675	16.9%
한 양 대	8,370,073	57,502,590	14.6%
건 국 대	5,000,000	39,166,800	12.8%
경 원 대	1,454,154	12,147,406	12.0%
명 지 대	2,100,000	18,401,145	11.4%
경 기 대	1,500,000	17,210,640	8.7%
경 회 대	3,437,176	40,208,013	8.5%
서 울 여 대	527,553	6,795,423	7.8%
수 원 대	-800,000	11,087,358	7.2%

사립대학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었으며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순으로 지급되었다.

본고는 전국 사립대학중 18번째인 2억9천3백19만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종합대학중 비교적 적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사립대학은 정부의 재단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액은

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기준령'은 학교법인이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 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은 수익금의 80%이상을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표2와 같이 본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10%이하인 점을 감안해볼때 재단의 수익사업 확대등의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자가 사립대학에 기부했을때 국·공립대학은 전액 면제되는 반면 사립대학은 소득금액의 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정부의 정책 또한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부추기는 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 증가, 수익사업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재단의 확충, 이의 등시에 대학에 대한 재단전입금의 증가등이 선행되어야만이 학기초에 진행되는 등록금 협상의 파행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記者>)

학생생활연구소의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때 '상담실'의 역할이 대학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일 것이다.

고등학교의 상담실이 다소 강제적이지만 학생들이 가끔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는 존재조차 거의 알 수 없는 위치이며 특별한 강제력도 없다.

제도권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적인 고민과 회의,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교육주체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장치로서 본교에서는 지난 83년 학생생활연구소를 개설하였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처의 일상적인 학생지도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데 미흡하다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공유되면서 출발하였다.

학기초나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분주한 학생생활연구소는 신입생들의 경우,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과 가정문제, 이성문제등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주며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성·직성 검사등을 분석해 준다.

"학생들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수학이나 심리학등을 전공한 교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학생생활연구소 소장 전용우(문리대·영문과)교수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기도 했다.

현재 소장 1인과 본교 교육대학원생,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학생 3인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연구소는 소장과 상담조교의 임기규정이 없어 상담자가

변동적이며 때문에 시대에따라 격변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의 주된 업무로는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와 학생들의 의식구조·가치관등을 연구하여 내놓는 '학생생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연구'에 나타나는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연구논문집을 집필한 교수들이 몇몇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둘째, 제6호나 7호를 보면 '수개월까지 속어를 통해서 본 학생들이 의식구조 연구'가 시리즈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 분석·평가 미약하다는 점.

위에서 제기한 연구논문집의 두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학생생활연구소 자체의 인원부족, 시설 미약등 어려움을 안고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생활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에 상담인원도 적다는 것은 학생생활연구소가 정회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측은 학생생활연구소가 진정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지원·홍보확대와 상담자의 전문화를 위해 인원보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학교측과 학생생활연구소는 서로의 협의를 통해 전문상담자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고민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학생생활연구소의 임무라고 했을때 전문인력의 확보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함께 학생생활연구소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자신들의 고민을 푸는 데 있어서 학생생활연구소에 가리거나 거부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기태記者)

제기능못해 유명무실한 기관

전문상담자 · 홍보확대 절실해

활연구'를 매년 발간하는 것이다.

연구논문집 '학생생활연구'는 91년도로 제8호를 맞게 되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성격과 의식·사고 파악, 현행교육구조의 문제점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생활등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등이며 이런 설문조사는 다시

'잘못산 물건'이 되어버린 예비강의제

▼우리가 물건을 살때 종종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제품자체의 결함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물건을 사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물건자체의 결함 역시 자신의 주의에 따라 충분히 식별할 수 있고 더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학기 수원캠퍼스의 수강신청은 재학생이 3월1일부터 3월15일, 복학생은 3월16일부터 3월19일까지로 예년보다 약 1주일가량 늦춰져 실시되고 있다. 이는 작년 수원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와 학교측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시행키로한 예비강의제 실시로 인한 것이다. 예비강의

제란 수강신청을 하기전의 일정기간동안 개설된 모든 강의를 선택, 수강케 하는 제도이다. 이를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중전의 수강신청 제도에서 나타났던 수강신청 번복 등의 문제를 극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열을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수강기간이었던 지난 1주일간의 수업에서는 적지않은 수의 학생이 출석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아예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등 출석율이 극히 저조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학생이나 일부 강사들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비강의제 실시를 학우들에게 제대로 홍보해내지 못한 교심위의 성과위주의 사업 뿐 아니라 강사들에게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학교측의

안일한 행정처리 역시 하나의 큰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학생은 물론 일부 강사들에게까지 잘못 인식되어 왔던 '개강후 1주일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점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놓은 예비강의제라는 제도를, 사고나서 후회하는 물건으로 만들고 만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학생들의 관성적인 태도가 후회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올해의 예비강의제는 이미 잘못 산 물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음학기의 예비강의제는 학생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소 잃고 치는 외양간을 또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 이대로 보내진 않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군대이어야 합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죽어갔습니다

80년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군대에서 죽어간 사람이 2천여명이라 합니다.

혹은 자살로, 혹은 사고사로 정확한 사인 규명도 없이, 시신도 제대로 넘겨받지 못한채 '사망통지서' 한장과 목숨을 바친 젊은이가 2천여명이라니 군대는 사람 죽이는 곳입니까?

또 하나의 의문사, 남현진의 죽음

애국외대 영어과 88학번, 남현진. 우리 곁에서 미국에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우다 군으로 간 우리의 친구, 그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친구가 자살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한장의 '사망통지서'로 우리 친구의 죽음을 목인할순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군대이어야 합니까?

학교에서, 생산현장에서 힘찬 땀방울을 흘리고 있어야 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군대라면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군대는 권력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것이어야 합니다. 몇몇 힘있는 자들을 위해 이용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군대가 아니라, 이땅에 살아가는 모든 힘없는 이들의 군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알 수 없이 죽어간 남현진 열사의 두눈을 감게 하는 길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